

光州日報 제언

책을 읽자, 신문을 읽자

# 冊

‘빛고을’ 광주의 새로운 수식어는 단연 ‘문화수도’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직접 나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가 하면 지자체도 광주를 문화수도로 바꾸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뒤돌아볼 때 광주가 문화수도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 커다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단숨에 문화수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시민이 되는 것이다. 시집 한 권 들

고 느릿느릿 걸으며 산책을 할 줄 아는 여류, 회사 사람들과 지난 주말에 읽은 책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진정한 문화시민의 자질이다. 광주일보는 문화시민의 기분을 닦기 위해 책과 친해질 것을 제안한다. 문화수도라고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지적 유희를 즐겨보자. 진정한 문화시민의 길은 책 속에 있다.



## 책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

가난한 자는 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 古文眞寶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종이 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도서관은 남의 얘기이고 서점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다. 신문 보는 것도 귀찮은 사람에게 독서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까. 하지만 책 속에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널려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종종 독서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라도 하면 한국은 어김없이 꼴찌를 면치 못한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도서관 수가 480여 곳인 반면 일본은 2천600여곳에 달한다. 1인당 장서는 각각 0.5권 대 2.4권이며, 도서 구입비는 한국 235억1천만원, 일본 3천535억1천610만원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더 참담하다. 2005년 3/4분기 국민 1인당 교양·오락비는 월평균 9만7천446원, 외식비는 24만5천807원인데 비해 책값 지출액은 월평균 1만여원에 그쳐 전체 소비지출액 204만8천902원의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만원은 한달 신문(중앙 일간지 기준) 구독료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국민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 순위는 세계 166위이며 한국인 1인당 한달 평균 독서량은 0.8권에 불과하다.

독서량 月 0.8권...세계 166위 부끄러운 ‘독서 후진국’ 오명

IT기술 접목 출판산업 미래 밝아

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서점 수는 3천429곳으로 지난 2003년 3천589곳 보다 160곳 줄었다. 지난 1992년 서점 수가 5천여 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해가 갈수록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2005년 서점 수는 204곳으로 2003년과 동일했지만, 전남은 102곳으로 2003년 110곳에 비해 8곳 줄어 제주(44곳)를 제외하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 인터넷 관련 통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유독 책·독서 관련 통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책을 사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고민해가며 고르기 보다 ‘내가 사니까 나도 산다’는 식의 충동 구매 일색이다. 독서는 성공적인 삶의 필수조건이다. 독서의 기쁨은 마음의 여유와 흥만을 깨닫고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경영

자독서모임(MBS·Management Book Society)은 독서의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좋은 사례다.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백낙한 인재대 백병원 이사장, 조석래 휴성그룹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고정동현 현대그룹 회장,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 등 독서의 필요성을 느낀 몇몇 CEO들이 조직한 이 모임은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좋은 책 한 권을 골라 저자를 초청,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책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도서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12인’ 등의 코너가 마련됐고, 인기 작가들도 독일까지 날아가 한국 출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한국의 책 100’ 코너에서 보여준 모바일 문화체험 등 우수한 IT 기술과 출판 산업의 접목은 도서전을 찾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해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미래를 밝게 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있게 마련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주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준다. 책 속에 길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 ■ 광주일보 선정 권장도서 60선

제목	저자
1 고향	이기영
2 과학 혁명의 구조	토마스 S. 쿤
3 광장	최인훈
4 구운몽	김만중
5 국부론	아담스미스
6 군주론	마키아벨리
7 그리스 비극	아이스킬로스 외
8 금강삼매경론	월호
9 논어	공자
10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11 두보 시집	두보
12 루쉰 소설집	루쉰
13 미의 산	토마스 만
14 맹자	맹자
15 목민심서	정약용
16 무정	이광수
17 미디어의 이해	맥루언
18 백년의 고독	가브리엘라 마르케스
19 변신	카프카
20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
21 보바리 부인	플로베르
22 사기	사마천
23 삼국유사	일연
24 삼대	염상섭
25 설국	가오버티아스나리
26 성찰	데카르트
27 성학십도	이항
28 성학집요	이이
29 셰익스피어 4대비극(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셰익스피어
30 순수이성비판	칸트
31 스완네 집 쪽으로	프루스트
32 슬픈 열대	레비 스트로스
33 신곡(지옥·연옥·천국)	단테
34 언나 카레나	톨스토이
35 양철북	그리스
36 엠틀로피	리프킨
37 역사	헤로도토스
38 열하일기	박지원
39 위대한 유산	다윈
40 이기적인 유전자	도킨스
41 이백 시집	이백
42 일리아드 오딧세이	호메로스
43 자본론	마르크스
44 자유론	밀
45 장자	장자
46 직과 흑	스통달
47 젊은 예술가의 초상	조이스
48 정지용 전집	정지용
49 중의 기원	다윈
50 주역	-
51 추홍글씨	호손
52 중용	-
53 짜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54 천변풍경	박태원
55 체호프 회극선	체호프
56 춘향전	-
57 카리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
58 토지	박경리
59 피우스트	괴테
60 홍루몽	조설근

※서술대 100권, 연세대 200권, 고려대 80권 권장 도서 중 두루 이상 겹치는 책을 선정, 가-디순

## 새롭게 거듭 태어났습니다!!

### 호텔식 출장객에 야외도시락

호텔식 서비스와 야외도시락의 결합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 호텔식 서비스
- 야외도시락
- 편의성
- 가격 경쟁력
-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 충성도 증진

**광주프린스호텔** | 예약 및 안내 062-511-0025  
Gwangju Prince Hotel